

# 죽음의 국경 넘는 티베트인 이야기

## ‘굿바이 티베트’ 마리아 블루멘크론의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 뒷이야기

우리가 맘 편히 한가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누군가는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한다. 매년 3000여 티베트 사람들은 눈 덮힌 히말라야를 넘고 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히말라야를 넘는 이유는 단지 자유와 희망을 찾아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1950년 중국이 티베트를 침공한 후, 티베트는 중국 당국의 강요에 의해 중국의 종주권과 티베트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17개 조항의 협정안’을 체결했다. 이후 중국군의 동부 티베트 지역 탄압과 달라이 라마의 신변문제 등으로 달라이 라마와 그를 따르는 티베트인들은 인도도 망명길에 오르며 왔다. 달라이 라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 정부를 설립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후 티베트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낯선 명명지로 길을 나섰다. 티베트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름다운 조국도, 내일의 행복을 보장하는 땅도 아니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자유의 땅 인도 다람살라에 도달하려면 1달 여를 눈과 빙벽을 뚫고 걸어야 한다. 그렇게 고향을 떠나는 피란민들의 여정은 책을 읽는 이의 마음을 안타깝게 한다.

낮에는 중국 경찰의 감시를 피해 바위 아래서 눈을 붙이고, 밤에는 어둠 속을 헤쳐 설산을 넘어야 한다. 대체로 피란민들은 경계가 상대적으로 덜 삼엄한 한겨울에 망명길에 오르는데, 혹독한 추위 속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동상으로 손발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혹여 중국 경찰에 걸리게 되면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이렇게 피 리미티 히말라야를 넘는 이들 중 반이 어린 아이들이라는 사실이다. 부모들은 자식이 조금이나마 더 인간답게, 나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히말라야로 보낸다. 언제까지 만날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자식을 떠나보낼 수밖에 없다. 티베트에는 미래가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히말라야의 혹독한 추위에 지쳐 죽은 어린이들이 만년설에 남겨져 있다.

〈굿바이 티베트〉는 저자인 마리아 블루멘크론이 티베트 망명자들과 함께 히말라야를 넘으며 쓴 〈히말라야를 넘는 아이들〉의 완결이자 뒷이야기다. 배운 출신이자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작가인 저자는 희망을 찾아 피란길에 오른 어린 아이들의 이야기와 그들을 가이드해 주는 켈상 직매의 인생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아이들을 데리고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 날 동안 아이들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먹여야 합니다. 피곤해 하면 업어 주고 특히 아이들 신발이 눈에 젖지 않도록 살펴야 합니다. 부모 생각이 나서 울면 다독여야 합니다. 밤이면 바지에 오줌 싸지 않도록



티베트인들은 중국 경찰의 감시를 피해 경계가 덜 삼엄한 한겨울에 망명길에 오른다. 국경을 넘어 부상을 당한 스님이 쉬고 있는 모습.

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아이들이 내뱉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잘 지켜 봐야 합니다. 힘들고 수심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일은 좋아해야만 할 수 있습니다.”(본문 16쪽)

‘굿바이 티베트’라는 말은 중국 경찰에 체포돼 모진 고문을 받고 풀려난 켈상 직매가 고국 땅을 떠나며 나지막이 속삭인 인사말이다. 또한 국경을 넘어 자유를 찾아가는 모든 티베트 피란민들이 조국에게 건네는 인사말이기도 하다.

책은 민감한 국제정치 사안과 맞물려 주목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저자는 티베트 정치 상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는다. 다만 눈보라를 헤치고 죽음의 국경을 넘는 티베트 사람들에게 대해 담담히 이야기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인물들의 개인사와 가족사를

문학적으로 가공해 티베트 사람들이 받아 온 억압과 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굿바이 티베트/마리아 블루멘크론 지음/김화경 옮김/하안연꽃 펴냄/1만3000원

이은정 기자 soej84@buddhapia.com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기도	법륜	정토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솔잎 사이 바람소리	무비 외	불교신문사
4	붓다 브레인	릭 헨스	불광출판사
5	한국불교의 최초로 찾아서	심정성	운주사
6	초기불교이해	각목	초기불전연구원
7	소설 무소유	정찬주	열림원
8	젊은 날의 깨달음	헤인	클리어마인드
9	굿바이 티베트	블루멘크론	하안연꽃
10	고승과 명찰	황원갑	바움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 마치 선재동자처럼... 구도행각 풀어내

### 길상 스님의 ‘숲 속의 문’

“불성을 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가 지금 뭐라카노, 제 눈을 지가 어떻게 본단 말이고?”

책은 각박한 현대를 살아가며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물음을 한번쯤 곱씹어본 사람들에게 작은 실마리를 선사하고 있다. 속세를 떠나 구도자가 되기 위한 과정을 그린 소설은, 인간이라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절망과 방황,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저자인 길상 스님은 갓 스물의 나이에 불교에 입문하게 됐다. 책은 그 당시 스님의 방황과 험난했던 구도의 길을 소설로 엮은 것이다. 이야기는 소설 속 ‘나’가 막연히 영주 부석사로 발길을 옮기는 데서 출발한다. 이후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봉암사 등 전국 각지의



사찰을 돌며 고승과 도반스님들을 만나며, 그 속에서 진리의 문에 다다르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고된 일인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어떤 답도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어둡고 울창한 숲으로 들어가는 소설 속 ‘나’의 모습은 삶과 죽음의 문제와 모순 속에서 길을 잃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며 길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의 모습과 속세에서 산문으로 산문에서 속세를 오가며 삶의 모순을 풀어나가려 발버둥치는 구도자의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숲 속의 문/길상 스님 지음/푸른하늘/1만원

이은정 기자

### ■ 신간 도서

#### 솔잎 사이 바람소리



올해 창간 50주년을 맞은 불교신문사가 특별 기획법문집을 펴냈다. 우리 시대 큰스님 31인의 치열한 수행과 삶을 그린 책이다. 책에는 지중 스님, 성수 스님, 고산 스님, 보성 스님, 월주 스님, 밀운 스님, 혜정 스님, 대원 스님, 현해 스님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스님들의 법문이 담겨있다.

누구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자기를 잃어버리고, 분노와 욕심을 삭혀줄 지혜를 갈구 한다. 스님들의 법문은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은 어디 있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인생의 지혜를 알게 해 준다.

또한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지고한 가치를 지닌 존재임을 강조하며, 자신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안에서 역할을 한다.

이 밖에 5년 간 다섯 가지 품로 끼니를 해결한 성수 스님, 걸레도 빨리 헤집 것을 염려해 살살 짜게 했다는 효봉 스님, 영단 앞에서 졸다 잠꼬대 하는 모습을 들려 간 집에 걸렀다는 소문으로 곤욕을 치렀다는 명선 스님 등의 수행담은 읽는 이에게 재미를 더한다.

불교신문사 펴냄/1만5000원

#### 붓다 다르마



붓다는 자신의 시대가 안고 있는 온갖 모순과 불합리를 깊이 통찰하고 그것을 일깨운 역사적 존재였다. 역사를 벗어난 불교는 신학화(神學化)된 불교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한국 불교의 위기가 있다.

책은 고평마 붓다의 정통 가르침을 바르게 알자는 뜻에서 저자가 30년 동안 포교 생활과 연구의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저자인 성열 스님은 <빨리 삼장> <아함경> 등을 근거해 고평마 붓다의 가르침을 원형대로 지키려 노력했다. 고평마 붓다의 가르침을 인식론, 현상론, 실천론으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나는 누구이고 왜 방황하고 있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성열 스님 지음/문화문고 펴냄/2만2000원

#### 한국불교의 최초로 찾아서



“처음으로 올려 퍼진 범종 소리는? 가장 오래된 불화는? 처음으로 세워진 불탑은?”

책은 한국불교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는 교양서다.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고 접하는, 혹은 호기심을 가질 만한 주제들을 통해 불교에 대해 평이하게 서술하고 있다.

오랜 세월 불교는 이 땅 구석구석에서 민중과 함께 호흡하며 유형·무형의 수많은 문화를 창조해 왔다. 책은 대중들이 비교적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44가지의 주제를 가려 뽑아 그 기원과 전개 과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의 내용들은 각종 불교경전과 <삼국사기> <삼국유사> 등의 역사서, 고승전이나 각 사찰의 사적기, 전공서적과 논문 등에 철저히 근거해 어느 전문서 못지않은 탄탄한 내용이 들어있다.

심정성 지음/운주사 펴냄/1만5800원

「현대불교 창간 16주년」을 축하합니다

##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테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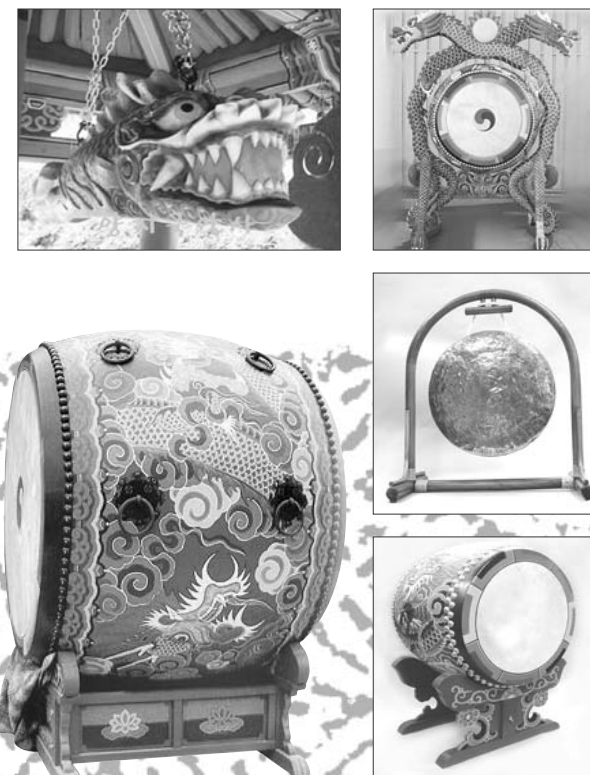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대 칼라 지붕 공사**

##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g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덕성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창립 38주년

청안스님 (행가리 원광사 주지)

### 초청법문

## May I help you?

일 시 : 2010년 11월 12일(금) 오후 3시  
장 소 : 덕성여자대학교 대강의동 205호  
오시는 길 : 지하철 4호선 수유역 (3,6번출구) 하차  
중앙버스차선 덕성여대행 버스  
(120,153,1218번)  
대표 전화 : (ARS) 02-901-8000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당신과 온 세상을 동시에 돕는 것과 같습니다.

Helping somebody is like helping yourself  
and the rest of the world at the same time.

- 청안스님 -

DUK SUNG go! 나의 베스트 파트너 덕성여자대학교 불교학생회·동문회